

2023. 5. 16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

문화재관리과	김홍진	2133-2650
세계유산등재팀장	신영문	2133-2666
담당자	김명옥	2133-2657
관련 누리집 (메뉴)	https://seoulcitywall.seoul.go.kr (공지사항)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음악회부터 식물재배까지, 쉼이 있는 한양도성으로 놀러오세요 ... 서울시,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최

- 한양도성 성곽마을, 음악회·마을해설·체험프로그램 등 문화 프로그램 새단장
- 5월 20일(토)부터 매주 토요일 2시 순성객을 위한 369마실 앞 작은 음악회 개최
- 충신동 한옥 「흥인재」 에서 ‘테라리엄 체험’, 369마을에서는 전시와 공연도
- 성곽마을 여행자안내센터에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각체험 월 1회 운영
-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통해, 5월17일(수)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시작

- 서울시는 5월20일(토)부터 ‘쉼이 있는 한양도성’을 주제로 한양도성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‘쉼이 있는 한양도성’은 국내외 한양도성 방문객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·도성과 마을 해설·체험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.
- 먼저 ‘한양도성 작은 음악회’ (369성곽여가 : 풍류 버스킹)는 혜화문 맞은편 낙산 초입에 위치한 369마을 내 작은 카페인 369마실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. 도성 주변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공연자로 참여한다.

- ‘369마실’은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을 카페다. 마을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수제청과 369마을의 특징을 담은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공예작품들이 판매되고 있다.
 - 공연장르는 우리의 전통 국악과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되는 재즈 등으로 도성과 마을의 일상을 소박하고 잔잔하게 담을 수 있는 곡들이 연주된다.
- 마을 해설프로그램인 ‘도성과 마을’은 도성과 성곽마을이 함께 해온 오랜 시간들을 해설과 체험으로 만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. 조용하고 소박한 성곽마을의 일상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갈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.
- ‘도성과 마을’은 흥인지문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▲충신성곽마을 혜화문 건너편 도성 바깥마을인 ▲369마을, 그리고 ▲성곽마을 여행자 안내센터 총 세 곳에서 진행된다.
- 해설사와 함께 고즈넉한 도성과 마을 골목길을 걷고 난 후, 충신성곽마을 작은 한옥 ‘흥인재’에서 테라리엄(밀폐된 유리그릇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) 체험을 할 수 있다.
- 충신성곽마을의 해설과 체험은 총 2시간 내외의 프로그램으로, 흥인지문 공원에서 출발하여 한양도성박물관을 둘러본 후 충신성곽마을 골목길을 거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한옥 ‘흥인재’에서 테라리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었다.
- ※ 테라리엄 : 밀폐된 유리그릇 안에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

- 369마을에서는 혜화문 건너편 낙산 초입에 위치한 369마을이 품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해설로 만나게 된다. 소박한 마을여행은 369 예술터에 마련된 전시 관람으로 끝난다.
 - 369마을의 해설과 체험은 1시간 내외로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만나 혜화문 건너편 낙산초입 순성길을 지나 마을의 골목에 위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369사랑방과 369예술공방을 지나 369예술터에서 진행되는 전시를 관람하게 된다.

- 한편, 성곽마을 여행자안내센터에서 진행되는 ‘전각(篆刻)으로 만나는 한양도성’은 서울거주 외국인 대상 참여프로그램으로 영어로 진행된다. 성돌에 새겨진 각자성석의 의미를 전각체험으로 만날 수 있다.
 - 전각으로 만나는 한양도성은 총 2시간 진행되며, 전각체험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.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전각을 가져갈 수 있으며, 작은 족자에 직접 만든 전각을 찍어볼 수 있다.
 - 회당 참여인원은 10명이며, 성인만 참여가능하다.
 - ※ 각자성석 : 도성 축성의 기록이 새겨진 성돌.

- 각 프로그램의 신청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시스템 (www.yeyak.seoul.or.kr)을 통해 5월 17일(수), 10:00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. 해설과 체험장소가 마을내에 있는 만큼 참가인원은 회당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. 1인당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.
 - 마을탐방 및 체험은 초등1학년 이상 참여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이다.
 - 전각으로 만나는 한양도성은 5.19.(금) 10:00부터 접수를 받는다.

-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재관리과(☎ 02-2133-2657)로 문의하면 된다.

- 김홍진 서울시 문화재관리과 과장은 “‘쉼이 있는 한양도성’ 프로그램은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한양도성의 역사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전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‘쉼이 있는 한양도성’ 프로그램 운영개요 1부.

붙임 1. 「쉽이 있는 한양도성」 프로그램 운영개요

1 한양도성 작은 음악회(369성곽여가 : 풍류버스킹)

- 운영일정 : '23.5.20.(토)~10.28.(토), 매주 토요일 오후2시~3시 ※ 미 운영 : 7월~8월
- 공연시간 : 1시간 소요
- 공연장소 : 369마실 앞(한양도성 낙산구간)
- 공연장르 : 국악, 재즈 등 도성과 마을에 어울리는 조용하고 소박한 곡으로 구성
- 관람방법 : 자유 관람

2 도성과 마을 해설·체험

- 운영일정 : '23. 5월~10월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상이
- 프로그램 : 총 3개

연번	프로그램명	운영횟수/일자	인원	대상
1	369마을 (탐방,전시 등)	총 48회, 매주 토요일 (11시,13시,15시)	회당 10명	서울시민 이주민가족 (초1 이상)
2	총신성곽마을 (탐방,한옥체험)	총4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(10시)	회당 10명	서울시민 이주민가족 (초1 이상)
3	전각으로 만나는 한양도성	총4회 매월 넷째주 토요일(13시)	회당 10명	서울거주 외국인 성인

- 신청방법 :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(www.yeyak.seoul.go.kr) '쉽이 있는 한양도성' 검색
 - 접수시작 : '23.5.17.(수) 10:00, 선착순 접수
 - ※ 전각으로 만나는 한양도성 접수시작 : '23.5.19.(금) 10:00, 선착순 접수